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005 | Summer | 제6호

열린 상담  
031 214 7942  
친 구 사 이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43-1 2F  
TEL 031-228-7942 Website www.csp.or.k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CENTRE FOR SUICIDE PREVENTION

# Contents



- 03 편집자의 글
- 04 CSP 초대석 \_ 언론의 자살보도, 더욱 엄격한 잣대 필요  
/ 양훈도 경인일보 논설위원
- 06 CSP NEWS
- 10 CSP 상담동계 \_ 2005년 3월 ~ 2005년 5월
- 12 아름다운 사람 \_ 수원시 재난관리과 황금용
- 14 THEME \_ 홍콩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 18 Cartoon
- 19 CSP ZONE \_ 에 세 이 · “유머=균형”, 균형잡기 놀이  
/ 송희준 CSP 상담원  
CSP 사람들 · 최경희씨의 열쇠이야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CSP Junior ·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 아름다운 사람지킴이  
/ 희망안경=최동형
- 26 CSP NETWORK \_ 수원기초푸드뱅크
- 28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CSP \_ 경인일보 공동 캠페인  
“희망충전2005, 사랑이 해답입니다.”
- 29 REVIEW \_ in the Museum / Old & New /  
in the Book / in the Movie
- 38 CSP 워크샵 \_ 아동학대의 이해와 상담
- 40 거기에 내가 있었네 \_ 인도 땅에서 하루만에 1000루피 벌기
- 42 생명의 나무 \_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1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통권 6호  
 발행일 2005년 6월 20일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발행인 이영문 편집인 이디·백민정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메산로3가 43-1 2F  
 TEL 031-228-7942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수원시 안전도시사업  
 (safesuwon.or.kr)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책 읽기, 이웃 만나기

출근길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을 타는 삼십분 동안, 난 짧은 아침독서를 하곤 한다. 종종.  
 ‘오호라, 빈 자리’. 운이 좋은 날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펴들었다. 책 제목은 「어느 쓸쓸한  
 날의 선택 자살」, 세계 지성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명쾌한 진단을 담고 있다는 책. 제목이 약간 공  
 격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한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었다.  
 한참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결눈질이 찾아진다. 차림새가 여대생 같다. 자꾸 흘끔거  
 리더니 급기야는 책 제목 좀 보잔다. ...., 보여줬다. 책 제목을 읽은 그녀의 시선이 날 머리끝에서부  
 터 짹~악 훑어내린다. -.-;;  
 퇴근길 다시 지하철. 성경책 곁에 들고 웅얼웅얼 성경구절 외던 아주머니 앞에 섰다. 아침에 읽다  
 만 책을 펼쳤다. 두어 페이지 넘겼을까. 아주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책 위로 옆으로 두더지 놀이를 하  
 잔다. 눈 마주치기가 꺼끄러운 듯 내 시선을 피하더니만, “왜 그런 책을 읽어.”하며 내린다. ...., 예  
 상치 못했던 그들의 반응은 날 얼마간 당황스럽게 했고 결국엔 엉뚱한 내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았다.  
 다음날부터는 아예 연령별로 골라 사람들 앞에 서서 보란 듯 책을 폈다. 걱정스럽다는 얼굴에 뭇  
 가를 좀 말해 보라는 표정을 짓는 할아버지, 흘끔흘끔 내용이 궁금해 못참겠다는 얼굴의 중년신사,  
 아예 책을 좀 보자고 뺏아가는 청년, 재갈재갈 수다를 일시에 멈추고 속삭속삭 거리는 고등학생들.  
 그러는 며칠동안 내가 그들에게서 본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다. 비록 그 관심을 적극적으로  
 또는 온전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 속으로 관심의 안테나를 길게 길게 내뻗고 있  
 었던 것이다. 누군가 먼저 손 내밀면 다들 반갑게 마주잡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오늘 퇴근길에 만날 그들도 앞의 그들처럼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하고 말  
 한 마디 건네고 싶어하는 내 이웃일 것이다.



# 언론의 자살보도, 더욱 엄격한 잣대 필요

경인일보 논설위원 | 양훈도

원고청탁을 받을 무렵 몇 건의 자살 보도가 잇따랐다. 4월 10일 S과학교 학생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일엔 충남 명문고로 알려진 H고 재학생의 아버지가 자동차에 스스로 불을 질러 3식구가 숨졌다. 특히 이 가족은 수원시민이어서 지역사회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21일에도 대전에서 한 여학생이 목을 땀다. 한 신문은 '성적이 튀기에'라는 제목의 사실까지 썼다. 그 즈음 3년 전 집단 괴롭힘 때문에 투신해 숨진 중학생

이 남긴 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서엔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 가만 안 둔다."라고 써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다. 늘어만 가는 청소년의 자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는 걸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부터가 문제를 안고 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나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사들이 자살보도준칙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잣대로 보자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우선, '자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설명은 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앞에서 예로 든 기사 세 건의 경우 '성적비관'이라고 자살 이유를 단정지었다. 과연 그럴까. 케이 레이필드 재미슨

이 「자살의 이해」에서 강조하듯 자살은 한 가지 요인이나 어떤 사건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른 계기가 '성적비관' 뿐이었을까. 특히, 일가족 사건은 것처럼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며칠 뒤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학내폭력문제가 있었다는 유족측 항의가 기사화되기는 했지만, 가족 병력이라든가 사건 경위 등 납득할 만한 복합적 동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왕따 중학생 유서 보도의 경우도 '자살을 다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주는 보도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성적비관' 처럼 '왕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보도라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의 자살

을 꿈꾸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뒤늦게 공개된 유서를 꼭 보도했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전 E고교생 보도도 평소 '성적이 쾌활하고 교우관계도 좋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살 성공자의 긍정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지양하라'는 기준을 어겼다. 자살자가 겪었을 엄청난 내면적 고통과 문제점을 함께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살행동들은 학생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을 경우 정밀한 취재 없이 일방적 또는 편의적으로 재단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한, 사실로 칼럼으로 '학생들이여 죽지 말라!'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지 말자!' 라고 외쳐도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학계가 협력하고, 수원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가 인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의 자살보도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물학적 수명과 사회적 수명 사이에 갭이 너무나도 큰, 그래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더 속이 쓰리고 아픈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 우리 언론인들부터 각성해야 한다. 지역 언론인의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학계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도 있다. 우선, 자살에 대한 통계 등 기초자료부터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자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벌이려면 이러한 기초자료가 제대로 공급되

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하루 몇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몇 명이 죽음에 이른다는 정도의 수치적 통계는 나와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역적 계층적 특성이 반영된 믿음만한 통계와 구체적 분석은 구하기 어렵다. 자살관련 통계와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부 기관에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작업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가운데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선구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의 개설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역시나 지역사회 차원의 통계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학계가 협력하고, 수원시는 물론 정

부-경기도가 인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의료계가 협력해 '상담-치유'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을 매일매일 접하는 교사와 각 학교 상담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 역시 비용 문제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생명에 대한 긍정의 무의식을 불어넣고, 그들이 자살의 덫에 치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분야의 책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분투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 3월 12일 | CSP 청소년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또래상담을 위한 사랑의 대화기법을 배웠다.
- 3월 24일 | 수원생명전화 제1회시민상담대학에서 '위기/자살문제 상담(김명식 CSP임상심리사) 강의'가 있었다.
- 3월 30일 | PM 6:30 경기방송(99.9) 저녁종합뉴스, 자살의 다양한 변인들과 CSP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자살, 또 자살...이대로는 안된다' 방송.
- 3월 29일 |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Akiko Ishihara 연구원)과 국제교류미팅이 있었다.
- 3월 31일 | 3월 공개워크샵 '알코올중독 치료와 자살예방(신정식 정신보건사회복지사(경기수원알코올상담센터))'을 개최했다.
- 4월 6일 | 경인일보와 함께 '자살예방 공동캠페인'을 시작하였다.
- 4월 7/14일 | CSP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방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 4월 16일 | "비움채움 정신건강축전"에 홍보관 "넘어섬"으로 참가, 자살예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진행했다.
- 4월 19~20일 | 인천정신건강 박람회에 참가하여 CSP 활동을 소개하였다.
- 4월 26일 | 경기지방경찰청 경찰학교에서 신세대 부대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관리자 교육(김명식 CSP임상심리사)을 실시하였다.
- 4월 28일 | 수원희망자활후견기관을 탐방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 5월 4일 | 경인일보 공동캠페인 자살예방정보3편 "당신의 자녀와 마음을 나누세요."가 게재되었다.
- 5월 21일 | CSP 온라인상담원 사례지도가 있었다.
- 5월 25일 | 나곡중학교에서 학부모를 위한 자살예방인지교육을 실시했다.
- 5월 26일 | "아동학대의 이해와 예방방법" 자살예방 공개워크샵을 개최했다.

### [ 고등학생 전국 연합 출범 ]

대입제도 개선과 두발자유 등 고등학생들의 권리 대변을 표방하는 최초의 전국 고등학생 대중단체가 출범했다.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지난 6월 6일 오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출범식을 열어 "명목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학생회의 제자리를 찾고, 고교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교کم, 제1회 교کم Dicafree-O 촬영대회 ]

온라인 교사모임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이하 교کم)"에서는 오는 6월 18~19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서 제1회 교کم Dicafree-O 촬영대회를 갖는다. '교کم사랑, 디카사랑 : 디카에 담아본 자연, 디카와 함께한 교کم'이란 주제로 열리는 본 행사는 자연을 담은 사진촬영을 통해 지역교کم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정을 나누고자 마련된 것으로 충남교کم과 디카활용수업분과 공동주관이다.

### [ 센터 뉴스 "알코올중독치료와 자살예방" 자살예방 공개워크샵 개최 ]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그동안 매월 대내적으로 개최해오던 자살예방워크샵을 2005년 3월부터 일반시민에 공개, 지역사회 자살예방교육의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시간이었던 지난 3월 31일 "알코올 중독치료와 자살예방"이란 주제의 워크샵에는 상담관련 종사자와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사례를 통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공개 워크샵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심화도 꾀할 계획이다.



### [ 자살예방인지교육 - 나곡중학교 학부모 ]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25일 수원시 나곡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게이트키퍼 트레이닝(Gatekeeper Training)을 실시했다.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소개한 본 교육은 지역사회 각 계층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 [ "생명사랑" ]

### 생명사랑 꽃씨 나누기

수원생명전환회는 지난 4월 16일 수원지역에서 "생명사랑 꽃씨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현상을 불식시키고 꽃씨를 나눔으로써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는 한편, 가족들이 꽃씨를 심어 가꾸는 체험을 통해 생명사랑과 함께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5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꽃씨를 나누어주었다.



### 자살예방을 위한 제2회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

한국생명전환회는 지난 5월 22일 한강시민공원(여의도)에서 MBC와 공동으로 제2회 생명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 생명사랑 마라톤대회는 건강한 스포츠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인내하고 극복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땅방울로 느껴보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닥친 도전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대회에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하프마라톤과 10km 단축마라톤, 5km 건강달리기가 진행되었다.

### "인디야, 가자! 나를 찾아서!"

지난 4월 4/5일 양일간 생명사랑을 전하는 한국생명전환회와 진정한 자기실현을 꿈꾸는 젊은 인디 예술가들은 서울 혜화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인디야, 가자! 나를 찾아서"는 'I love myself(자기사랑), I respect myself(자기존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문화운동을 펼쳤다.

자기표현을 아끼지 않는 인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이날 행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과 우울증 등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련의 사회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생명소중의 긍정적 메시지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디 밴드 공연, 인디영화제와 인디만화제, 자살예방을 위한 서명운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생명전환회 자살예방센터 건립을 위한 벅돌 한 장 모으기 운동에 기부되었다.



## [ 센터 뉴스 자살예방인지교육 - 경기도학부모봉사단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인지교육,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이 경기도학부모봉사단(단장 김영심)을 대상으로 6월 15일 아주대병원 아주홀에서 열린다. 청소년 자살예방과 밀접한 관계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은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과 원인,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본 센터의 김영식 임상심리사의 강의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 자살예방상담학교 - 종교지도자와 함께 ]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오는 6월 21일, 경기도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2005 자살예방상담학교, 종교지도자와 함께"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살예방상담학교"는 그동안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던 자살예방상담을 지역사회의 전문가 그룹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 계 종교지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동수원감리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 세번째 "친구사이", 수원 화홍고에서 실시 ]

CSP의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친구사이'의 세번째 프로그램이 오는 6월 20일과 27일 수원 화홍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자살예방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하고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자살의 특징적인 징후와 자살의 위험요인과 방어요인을 살펴보고 대처방법을 연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친구사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사진은 2004년 12월 매향여중에서 실시했던 두번째 '친구사이' 모습이다.



# CSP 상담통계

2005년 3월 ~ 2005년 5월

2005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의뢰된 상담을 월별, 성별, 연령별, 상담내용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 자료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 의뢰된 상담만을 기초로 한 통계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 전체 상담건수

### 전화상담 172건

2005년 3월 69건 / 4월 60건 / 5월 4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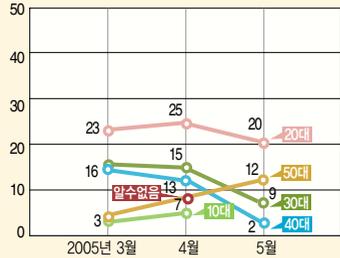
- 전체상담건수는 전화상담 172건, 온라인상담 191건으로 2004년 12월~2005년 2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알수없는 건수는 그래프에서 제외하였다.

### 온라인상담 191건

2005년 3월 74건 / 4월 62건 / 5월 55건



## 연령대별



- 전화 및 온라인상담 모두 20대~40대의 상담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 50대이상, 나이 알수 없음은 그래프에서 제외하였다.



## 상담의뢰내용 / 정서문제



- 정서문제로 인한 상담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FOCUS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시 상담내용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문제”를 정신과적 정서문제와 일반스트레스성 정서문제로 구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내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정서문제가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년 3월~5월의 상담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04년 12월~2월에 비해 전체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30대 연령의 위기상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상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2004년 12월~2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문제로 위기상담을 받은 내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일반적 스트레스성 정서문제

정서문제는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된 정서문제와 일반적 스트레스성 정서문제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스트레스성 위기상담의 높은 비중은 다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일반적 스트레스성 정서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대충 넘겨버리기 보다는 자신의 생활습관, 주변환경, 가치관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더불어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  
안전한 세상을  
꿈꾼다!

그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에  
는 자기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의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의 끊임 없는  
관심속에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누린다.



그는 공무원이다. 수원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황금용. 수원시민을 재  
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매일 매시간 변  
화 발전해 나가는 우리 사회, 그에 따라 우리들의 삶도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 나  
간다. 그러나 그 발전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그를 일에 열중하게 하는 이유이다.

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원시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주관하는 일명 '안전  
맨'이었다. 지난 1999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에서 책상 하나로 출발한 수원시안  
전도시만들기 사업을 맡게 된 '안전맨 황금용'은 2002년 수원시가 세계 63번째로, 아시아 및 국내 최초의  
'안전도시'로 공인받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안전대상 행정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  
다. 비록 혼자서 시작했지만 그는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수원시안전도시역학조사 결과를 토  
대로 안전도시사업을 구상 실천해 나갔다. 그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문은 사회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문제. 이동안전체험교실, 어린이안전주간, 1일안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했다.

또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살문제'에 집중하여 시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를 적극 지원했다.

**“자살예방사업은 이제 막 기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가 제대  
로 갖추어지면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는 안전도시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아직은 '안전맨'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6년 넘게 그의 머릿속에 손끝에 책상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그만의 '안전도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를 표방한 서울시, 도 전체를 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부  
친 제주도와 충청남도 등지에는 이미 몇 차례 다녀왔다. 모두 의욕적으로 안전도시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반갑다. 그러나 지역사회 전체의 의식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안전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가 이제 막  
안전도시를 이해한 담당자들에게 꼭 남기는 조언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에게 물었다.  
“공무원 아니었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망설임없이.  
“경찰이요.”  
“그도 공무원+시민의 안전!?”  
이래서 천직이란 게 있나 싶은데, 자신도 머쓱한 지 아이처럼 배시시 웃는 미소가 노을을 붙잡고 있었다.

수원시 재난안전관리과 **황금용**

클 | 이 | 디



홍콩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Suicide Prevention Services (SPS)

生命熱線

Live Life!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홍콩에서 노인자살률은 다른 연령층의 자살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 1990년대 일반인구 자살 사망률이 10,000명당 15명에 비해 노인인구는 10,000명당 30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 사망률은 26.7명으로 점차 줄어들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노인자살자 수는 2001년 대비 11%가 감소하여, 2001년 270명에서 2002년에는 자살로 사망한 노인 인구는 24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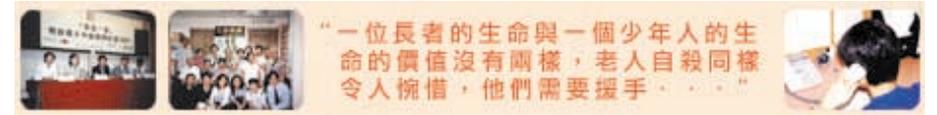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홍콩의 자살률 비교 (2001)>

나라	년도	성별	5-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세이상	전체연령
한국	2001	남자	0.4	9.2	18.4	24.3	33.1	43.4	56.9	91.6	21.8
		여자	0.7	6.2	7.9	9.1	9.5	11.6	20.6	39.9	9.2
홍콩	2001	남자	0.4	11.2	25.8	22.5	25.1	23.0	29.9	50.3	19.5
		여자	0.4	6.8	12.8	12.8	10.6	11.5	17.0	31.4	10.9

다학문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홍콩 노인자살의 원인에는 정신과적 질환, 고질적인 신체질환, 부정적인 사건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무망감 등과 같은 다소 복합적인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개인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살시도의 경력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신경증적이며, 더 내성적이고, 남과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며, 다른 이들에게 덜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살 예방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노인 인구의 자살에 기인하는 위험요인들을 줄이고 방어요인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콩 정부는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서비스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부터 건강한 노년기 가꾸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년기의 중요성을 일반시민들에게 고취시켰으며, 그와는 별도로 보건부의 경우 자체 노인건강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을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방 서비스 외에 홍콩 정부는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Live Life! Joint Project on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3개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홍콩 Social Welfare Department, 홍콩 Council of Social Service, 홍콩 Psychogeriatric Association에 의해 200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노인의 자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자살위험에 처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노인정신병리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을 보자.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총 46개 지역에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75만달리에 이르는 보조금으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인구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노인 자살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교육]

일반 시민, 즉 노인인구, 가족,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인구의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에게 서비스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친구 되어주기 활동]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자살충동, 정신적 고뇌, 절망, 노년기 우울감 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지역사회로부터 이점을 받으면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client와 연락을 취한다.

[자원봉사자교육]

노인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는 - 21세 이상 - ,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 - , 2인 1조로 1주일 4회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이 가능한 자 - , 6개월의 수습과정을 마친 후 다시 6개월 동안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 가운데 최종 선발한다.

## 자살예방 고취 라디오 프로그램

2002년 5월 8일부터 홍콩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되어 온 건강한 노년기의 삶의 장려와 노인 자살 예방 고취를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13회 방송되었다.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총 95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프로그램 방송 중 또는 방송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취자들로부터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로 인해 13회 방송분은 CD로 제작되어 의료기관과 노인인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배포되었다.

## 노인 전용 핫라인

홍콩 전역에 노인 전용 hotline이 개설되어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총 413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Sha Tin과 Tai Po 지역의 32명의 노인들이 복지담당부서로부터 집중 상담을 받았으며 58명의 노인들이 Prince of Wales 병원의 Life 클리닉에서 노인 정신병리학적 치료를 받았다.

## Elderly Suicide Prevention Program(ESPP)

우울증이 노인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이 밝혀짐에 따라 노인 대상 서비스를 하는 NGO와 Hospital Authority가 협력하여 2002년 10월부터 "Elderly Suicide Prevention Program(ESPP)"을 개발하여 홍콩 전역에 걸쳐 우울증과 자살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개입을 할 수 있는 7개의 fast track 클리닉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해 Hospital Authority는 Social Welfare Department, 그리고 NGO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다섯 개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프로젝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 아래 운영된 fast track 클리닉은 약 1063명의 환자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Hospital Authority는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NGO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자살위기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규칙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조기에 발견함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노인자살문제의 인식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홍콩자살예방센터는

홍콩 자살예방센터는 절망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므로써 그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계속 살아갈 의지를 갖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998년은 SPS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해이다. 우선, 3월에는 긴급전화상담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었고 5월에는 복권기금의 후원으로 시험사업인 노인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노인 내담자군의 80% 가량이 긍정적인 변화

를 보임으로써 SPS는 노인자살예방활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현재 SPS에는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예방과 타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자살관련 연구 조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인자살예방서비스를 비롯 홍콩자살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은 자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 24시간 자살예방 전화상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훈련받은 상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 지금까지 100,000여건이 넘는 전화상담을 해 왔다. 내담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수용과 공감을 토대로 내담자가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아온 홍콩의 19세 미만의 청소년 자살은 1996년과 2000년 사이 154명이었다. 청소년 자살은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성인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청소년 자살 수는 진정한 의미의 고위험군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모델을 이용한 시도가 있었고 때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1998년 홍콩자살예방센터는 홍콩 대학과 노인, 청소년, 어린이 정신과 전문의 등과 함께 질적 연구를 시작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권고안을 포함한 연구결과서 '홍콩의 청소년 자살'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 지역사회 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절망과 자살충동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대상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상담 전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되는 다학문적 청소년 정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살 위험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정신과 전문의와의 적절한 연계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살예방을 위한 gatekeeper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홍콩의 자살관련 통계 Suicide Statistics

- 전 세계 자살률 14.5/10,000(2002)  
홍콩의 자살률 16.4/10,000(2002)  
홍콩의 인구(680만명)  
홍콩에서 자살은 사망원인 6위  
홍콩의 노인자살률 26.7/10,00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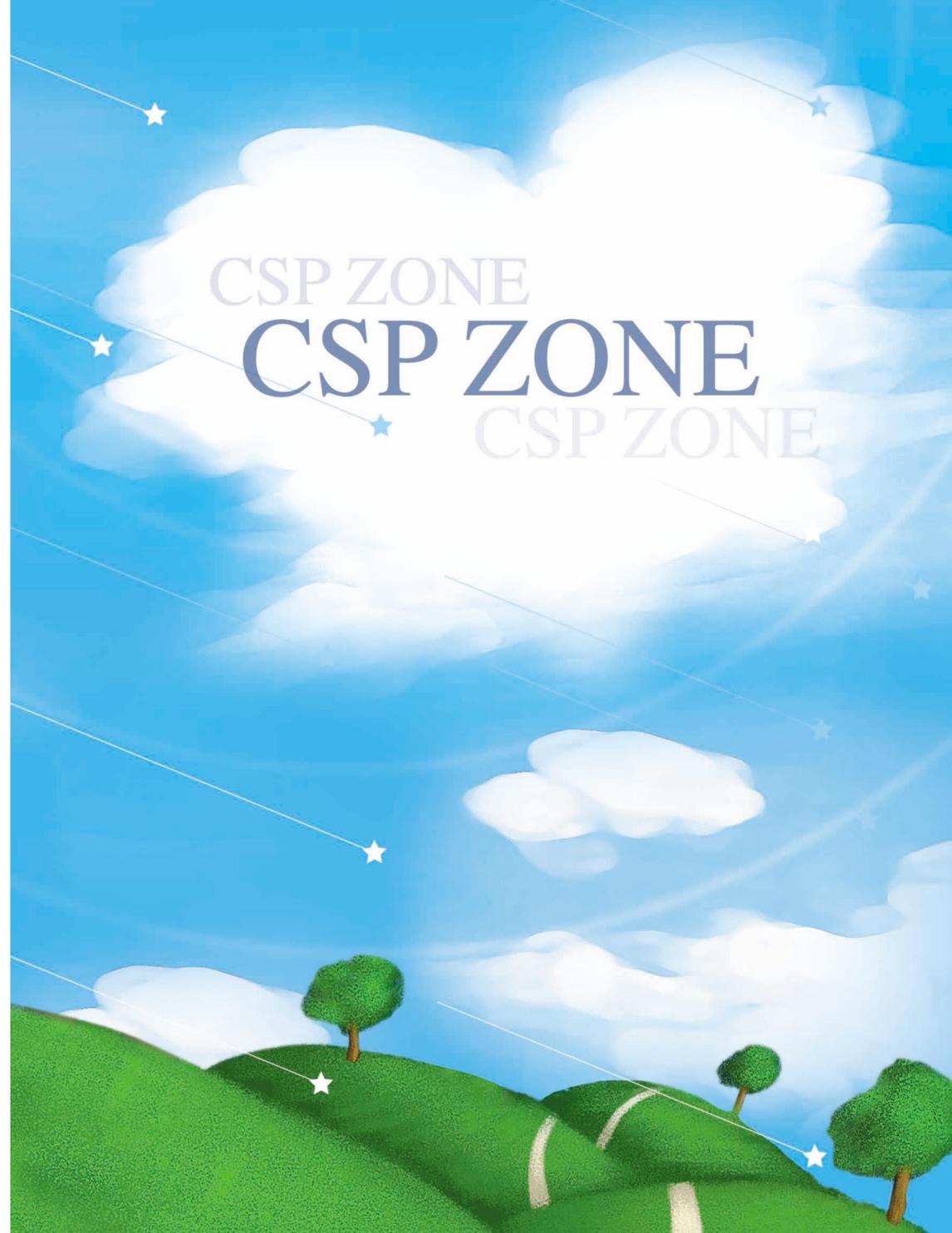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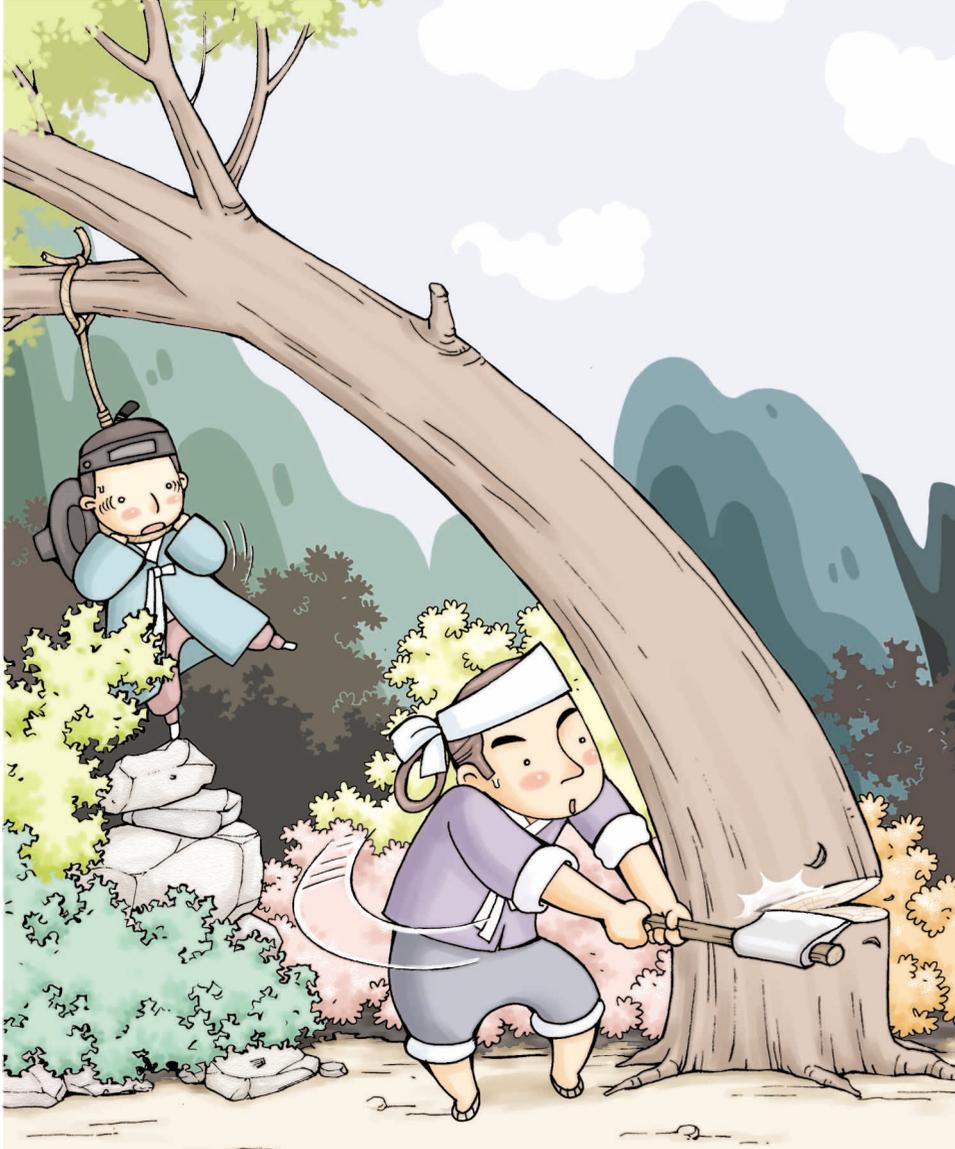
- 자살위험률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 홍콩의 경우 75세 이상의 남자노인의 경우 자살 위험률은 50/10,000(2001)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본 홍콩의 노인자살)



# Cartoon

순창군





# “유머=균형”, 균형잡기 놀이

CSP 상담원 | 송 희 준

꽃이 피러니까 금방이다. 봄비 한 줄기에 연둣빛이 흠뻑 묻어낸 앞산에 강아지 멍치를 데리고 올랐다. 애잔하고도 화사하게 만개한 진달래가 그야말로 ‘저~만큼’ 피어 있다. 가까이 다가서서 꽃잎을 어루만지니 내 마음에도 봄이 들어오는 듯 한낮의 무료함이 가볍게 녹아든다.

작년 봄의 일이 생각났다. 동양란 화분에 물을 주다가 꽃대가 힘차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참을 바라보며 꽃이 피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잠시 외출에서 돌아와 다시 보려니 꽃대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가위로 자른 듯 싹둑 잘려 나가고 말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고 잘려진 밑동만 처량하게 나를 올려다보면서 원망하는 듯했다.

난꽃이 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 접어두고라도 은은하게 퍼지면서 코 끝에 부드럽게 와 닿는 난꽃의 향기는 참으로 일품이다. 친구들과 더불어 일상의 지루함을 나누어보려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꽃대를 잘라 버리셨단다. 꽃이 별로 예쁘지도 않고 꽃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미리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는 것이었다. ‘저를 어찌나!’ 아깝고 불쌍해서 머릿속이 멍해지고 화도 났지만 이미 꽃대는 잘려졌고, 시어머니의 깔끔함과 부지런함을 탓할 수도 없었다.

얼마간 상실감으로 혼란스러웠으나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려고 애를 썼다. 이럴 때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말은 없을까? “유머감각은 균형감각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유머’와 ‘균형’이 등식관계로 만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머란 최악의 상태에서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전문의 빅터 프랭클을 만나면서 유머와 균형의 등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떤 한계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조금 비켜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여유로움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뜻이 아닐까?

그 이후로 나는 ‘균형잡기놀이’라고 이름 지은 게임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걱정과 불안에 잠겨 있을 때나 두려움으로 서성거릴 때, 무기력하게 그냥 있기 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며

나는 ‘균형잡기놀이’라고 이름 지은 게임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걱정과 불안에 잠겨있을 때나 두려움으로 서성거릴 때, 무기력하게 그냥 있기 보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며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말이다.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말이다. 균형잡기놀이는 내가 문제의 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 고약해진 마음도 밝게 바꾸어 놓는 힘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함과 만족감을 품을 줄 알게 하였으며 상담에 임하는 나의 자세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하기만 했을 때보다는 편안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 가운데서 성숙한다는 말이 옳다는 것도 깨달았다. 상담자로서의 나 또한 내담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듣고 지지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었을 때 크게 자랄 것임도 깨닫는 나날이다.

# 최경희씨의 열쇠이야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글 | 백민정

“네. 경기열쇠입니다.”  
“어떤 열쇠를 찾으시죠?”  
“문이 잠겼다구요?”  
“네. 곧 달려가겠습니다.”

최경희씨의 열쇠가게는 늘 사람들과 전화벨소리로 북적인다. 저렴한 가격으로 열쇠를 구입하려는 사람들, 새로 이사를 해 새 자물쇠로 바꾸려는 사람들,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 사람들.

그는 10년째 열쇠가게를 운영해오면서 진리(?) 하나를 얻었다. 하나의 자물쇠는 딱 하나의 열쇠로만 열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 달라서 그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런데 어찌보면 정말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지, 그는 아직도 더 만나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내담자 저마다의 이야기가 다르고 아픔이 다르다. 그에 따라 상담원의 이야기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가 늘 공부에 열심인 까닭이다. 경기대 평생교육원 성폭력상담과정을 수료했다. 최근에는 수원생명의전화에서 개설한 시민상담대학 강의를 듣는다. 저마다의 사람들에게 잘 맞는 열쇠들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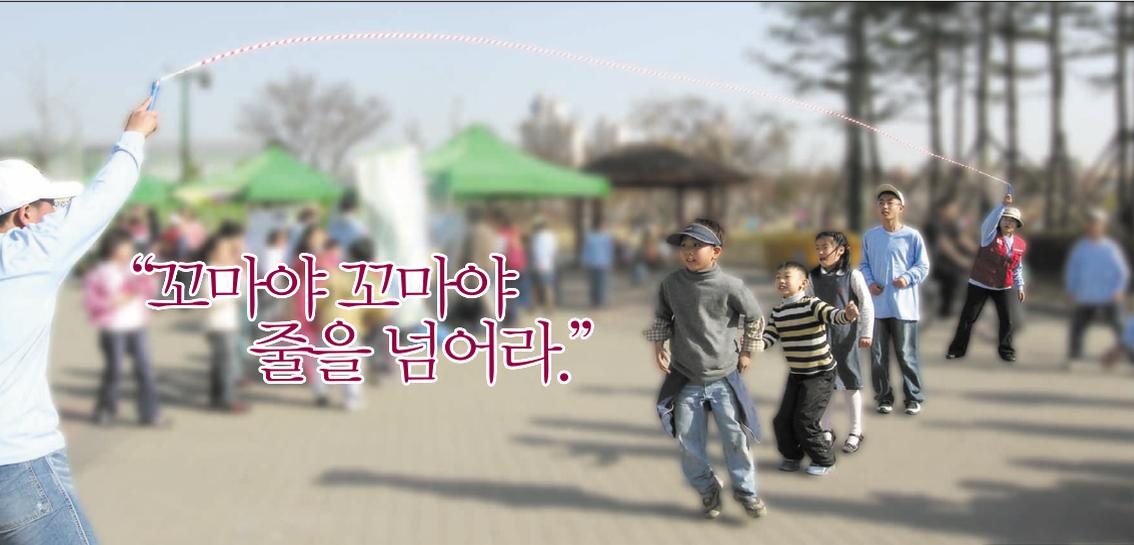


“하나의 자물쇠는 딱 하나의 열쇠로만 열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 달라서 그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가 상담원이 된 계기는 그의 큰아이의 반항(?)에 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역할 또는 자질 등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였지만 정작 상담원으로 일하다보니 도움을 받는 쪽은 바로 그 자신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생각들을 지켜보면서 그 자신의 마음 그릇이 자꾸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얼핏 생각하면 쉬운 일 같지만 막상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큰아이를 상담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묵묵히 정성스럽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없이 지지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그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참된 상담원의 모습이다.

그를 보면 오랜 시간 손때 묻은 열쇠를 보는 것 같다. 제 짝의 열쇠라도 자물쇠에 처음 꽂으면 뻑뻑하지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살짝만 돌려도 잘 열리는 것처럼 말이다. 삶의 여러 순간순간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그는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master key)와 같은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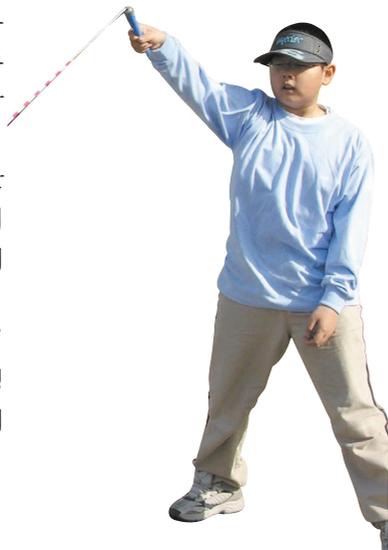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하나된 마음으로 줄을 넘는다.  
하늘과 땅, 사람 모두 담아 줄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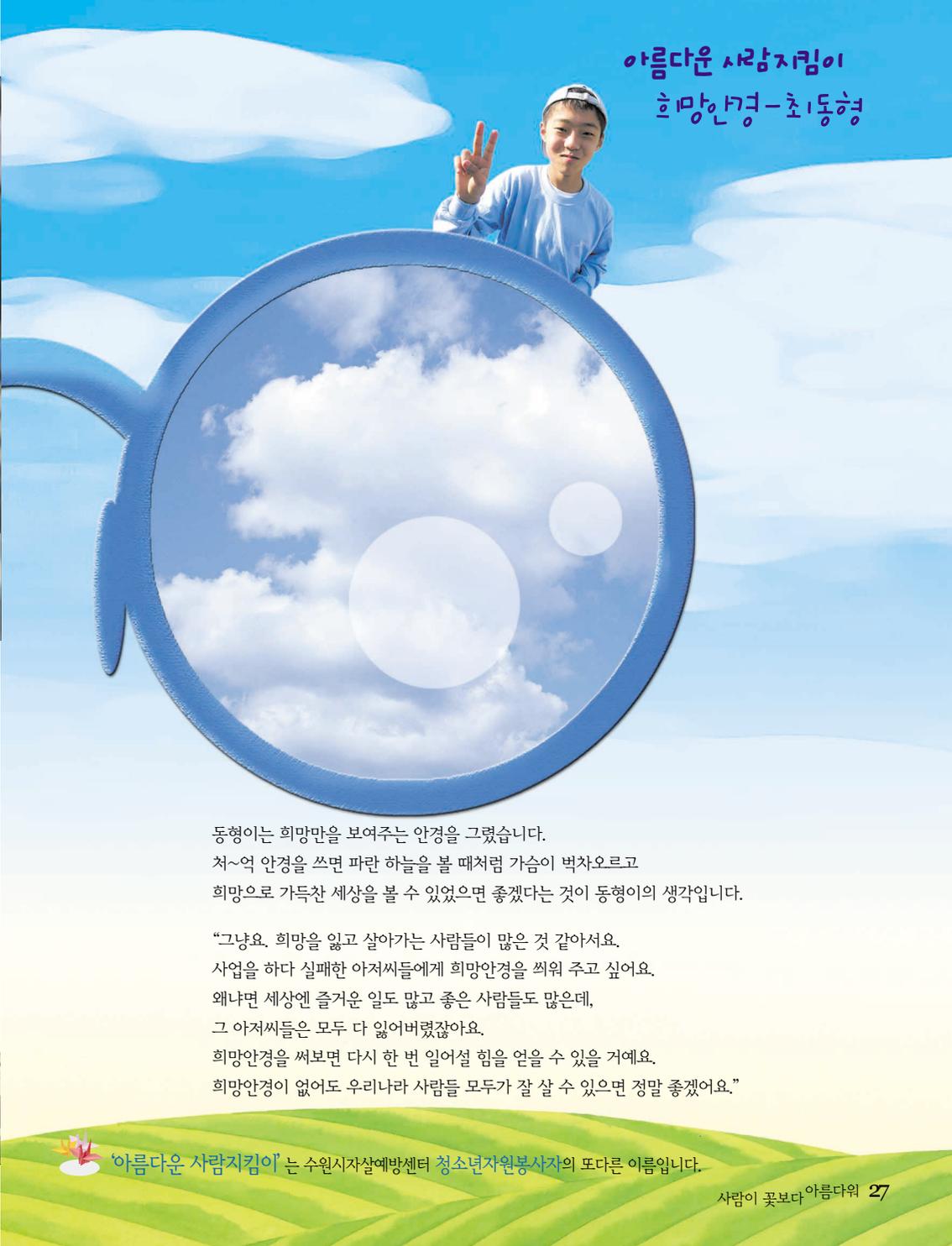
지난 4월 16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비움채움 정신건강축전”에는 때 아닌 줄넘기 열풍이 일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홍보관 ‘넘어섬’에서 마련한 “줄을 넘어 넘어섬으로”라는 줄넘기 이벤트에 어린(?) 참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돼, 줄넘기를 하려는 줄이 행사가 끝난 뒤까지 이어졌기 때문.

이날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자살에 대한 진실과 거짓 스티커 패널’ 운영을 비롯해 ‘가족대항 자살예방 그림퍼즐 맞추기’ 진행, ‘줄을 넘어 넘어섬으로’ 줄넘기 이벤트 진행 등 열의에 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성인 참관객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고 동시에, 특히 또래의 청소년 참관객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대화 및 정보전달로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름다운 사람지킴이  
희망안경-초동형



동형이는 희망만을 보여주는 안경을 그렸습니다.  
저~역 안경을 쓰면 파란 하늘을 볼 때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희망으로 가득찬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동형이의 생각입니다.

“그냥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사업을 하다 실패한 아저씨들에게 희망안경을 띄워 주고 싶어요.  
왜냐면 세상에 즐거운 일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아저씨들은 모두 다 잃어버렸잖아요.  
희망안경을 써보면 다시 한 번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희망안경이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지킴이”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자원봉사자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7

사랑의 식품을 나누어요!  
푸드뱅크 Food bank



## 수원기초푸드뱅크



### 푸드뱅크 개요

푸드뱅크란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지난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는 캐나다·프랑스·독일·유럽연합·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을 지원하는 이용자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하여 세계 약 13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기초적인 의식주의 해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1998년 푸드뱅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257개의 푸드뱅크가 활동하고 있다.

### 수원푸드뱅크 수원시내 1개소 운영, 소규모 식품 기탁 많아

수원푸드뱅크는 지난 1999년 7월에 활동을 개시했다. 수원시는 지방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 그러나 푸드뱅크는 단 한 곳밖에 없다. 그 때문에 식품지원 수요가 큰 데 반해 그 수요 전체를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식품관련 공장들의 수가 적어 기탁처 발굴도 어렵다. 대신 소규모 상가들이 산재해 있어 소규모의 식품 기탁은 꽤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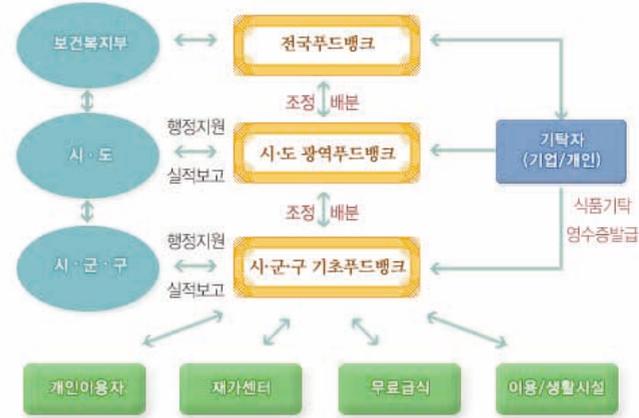


### “밥을 타”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산다?!” 푸드마켓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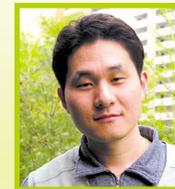
푸드뱅크는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간접적 경제지원서비스다. 인간의 3대 기본욕구 중 하나인 식(食)의 결핍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푸드뱅크의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푸드스탬프 ‘낙인’ 등 인식적 차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수원기초푸드뱅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푸드마켓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이란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식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을 공급한다는 개념. 말 그대로 “밥을 타”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는 것이다. 푸드마켓의 운영으로 푸드뱅크에 대한 대외적 인식은 물론 이용자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 효과도 얻고 있다.

《푸드뱅크 운영체계》



## 수원기초푸드뱅크 심원보 매니저



### 잉여 아닌 식품 기탁 풍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푸드뱅크에는 주로 잉여식품이 기탁됩니다. 식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근본의지에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막상 기탁되는 식품들이 잉여식품들이라 보니 사회적 인식이나 위생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은 식품이 아닌 ‘오늘 팔 식품’ 또는 ‘오늘 먹을 식품’을 기탁한다는 순수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역사회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 좋은 식품을 기탁 받으면 마치 제가 기탁한 것인양 마음이 뿌듯합니다.

식품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고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푸드뱅크에는 식품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탁자와 이용자 즉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가 말입니다. 저 역시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 자살예방캠페인 “희망충전2005, 사랑이 해답입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경인일보와 지난 4월부터 자살예방 공동캠페인 “희망충전2005, 사랑이 해답입니다.”을 펼치고 있다.

1년간 진행될 이번 공동캠페인의 첫 번째 사업은 자살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 총 다섯 종류의 스티커가 제작되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사업을 홍보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자살예방 스티커」는 수원시 안전도시팀이 지원하고 경인일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스티커는 지난 4월 15일 자살예방 1차 거리홍보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각 기관 및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 부착되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센터의 소식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도 스티커를 삽입하여 독자들이 차량에 부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인일보 독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격주(수요일 문화면-건강한 삶)로 게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가 칼럼, 수원시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기사가 특집으로 다루어질 예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공동캠페인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본격적인 자살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 시민들에게 자살예방을 위한 폭넓은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인일보에 실린 자살예방 관련정보 기사

- 2005. 4. 6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005. 4. 20 자살의 특징적인 징후
- 2005. 5. 4 당신의 자녀와 마음을 나누세요!
- 2005. 5. 25 당신의 자녀가 고통 받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세요.
- 2005. 6. 8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① / 사마천
- 2005. 6. 22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② /

## Old & New



Piggy Bank

## in the Book



인간이건물에게서

## in the Movie

# REVIEW



문인석

## in the Museum



민초들의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도 있었다!

## 죽어서나마 귀(貴)한 존재이고픈 무명씨(無名氏)들의 소망을 지키는 얼굴들

굳이 불교의 윤회사상을 들먹이지 않아도 예나 지금이나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배려는 애처롭고 정성스러우며, 때론 분에 넘친다(?).

경기도 광주 얼굴박물관에서 만난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코도 삐뚤 입도 삐뚤'인 문인석(文人石) 몇 점에서 죽은 자의 분에 넘치는 호사(好事)를 본다. 문인석은 본래 왕이나 귀족, 양반 등 사회 지배계층의 무덤 앞에 세워지던 석상들의 총칭. 일반서민들이 죽어서나마 고귀한 존재로 대접 받고 싶은 마음에 문인석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김정옥 관장의 해석처럼 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윤곽 속에 그 옛날 민초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비람에 씻기고 햇빛에 퇴색하기도 해 분명하진 않지만 민초들의 사후세계를 지켜주던 소박+초라 문인석들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친근하다.

똥똥한 코에 씨익 눈웃음을 날렸다. 짝눈에 관모도 삐뚤어지게 썼다. 눈 동그랗게 뜨고 웃을 듯 말 듯 입만 부처를 닮았다. 의대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살림이었겠지? 두 손만 가지런히 모았다. 돌출형 얼굴에 날카로운 콧대, 자~알 생겼다. 죽은 자가 다음 생에서 왕이라도 된 것일까? 익숙하지 보이며 웃었다.

필자의 얼굴도 돌에 새긴다면 바로 그런 얼굴들 중 하나일터, 거울을 보듯 한참을 들여다본다. '얼=영혼' 이 담긴 얼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살아서 받아보지 못한 조상의 인간다움을 죽어서라도 받게 해 준 후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바라마지 않으며 정을

쫓아냈을 석공은 또 어떤 얼굴이었을까? 바로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팔십 개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칠천 가지 표정 가운데서 씨익 웃거나 배시시 웃거나 헛헛한 크게 웃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의관을 갖추고 위엄 있는 얼굴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서있기 보다는 채 조각되지도 않은 짧은 다리로서서 후손들 복을 바라고 흠여 숙연히 지나는 이 있으면 "여기 귀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말 건네며 웃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 꿈을 이루는 보물상자, 저금통

## OLD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저금통은 BC 3세기 것으로 그리스성전 유적지에서 발굴되었다. 성전 모양으로 중앙상단에 동전을 넣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현재 독일 베를린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초기의 저금통은 각 가정에서 일정기간 돈을 모은 뒤 저금통이 다 차면 성전에 가져가 신에게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금통은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 신의 보호를 바라는 인간들의 마음을 담은 도구였다.

### 움집 | 1~3세기 로마 토기

고대 로마의 저금통으로 젓가슴 형태와 움집형태가 조합된 외형을 가지고 있다. 입구가 일부 부서져 있는데 성전의 사제들이 돈을 꺼내기 위해 입구를 깬 것으로 보인다.



### 예술을 담은 프랑스의 저금통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상류사회 사교클럽인 '살롱'이 나타났는데, 귀족층은 저금통을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소품으로 유행시켰다.

아름다운 도자기 저금통에 한껏 멋을 내 금화를 집어넣으며 부를 과시하기를 즐겼으며, 살롱에 초대된 남녀간에 은밀히 사랑의 쪽지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저금통을 이용하기도 했다.



### 귀족여인 신발 | 1890~1900 프랑스 도자기

19세기말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저금통이다. 귀족여인들이 신던 구두의 특이한 형태로 세기적인 예술도자기 바보틴(일명 마조리카)양식으로 제작되었다.

### 팁 저금통 | 1800 프랑스 놋쇠은도금

고급 미용실, 살롱 등에서 귀족부인들의 팁을 받는데 사용한 저금통이다. 너무 작아서 많이는 못받았겠다.



### 'Steel & Iron Bank'

1870~1900년대 미국·영국에서는 철강산업 발달로 주철식 저금통이 새로 등장했다. 미국과 영국의 완구회사들이 주철로 만든 재미있고 신기한 형태의 저금통들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버튼을 누르면 개구리가 긴 혀로 먹이를 낚아채듯 동전을 꿀꺽 삼키는 저금통으로부터 동전을 골프클럽에 끼워 놓으면 홀로 빨려들어가는 저금통도 있었다. 당시에는 이러한 아이디어 신상품들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호기심도 자극했다.



### 뼈에로 저금통 | 1870 은

뼈에로가 공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모양의 저금통, 자기 본분을 다하려는 뜻.

### 개구리 | 1890 철

189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것. 개구리 몸자리에 있는 쇠를 눌러 헛바닥이 나올 때 그 위에 동전을 놓으면 뒤에 있는 개구리가 동전을 삼키도록 만든 재미 있는 저금통이다.



# NEW 아이디어 좋기로 치면 세계 1등인 우리나라. 지폐·동전 구분하는 저금통에다 웰빙바람을 타고 향기나는 저금통 전자파차단 음이온 저금통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저금통들을 만나 보자.

### 목욕소녀 저금통 | 대한민국

동전을 넣으면 욕조 안에서 소녀의 발이 불쑥! 동전을 끌고 가버린다. 태엽을 감아 움직인다.



### 점점 커지는 돼지 저금통 | 대한민국

지난 2000년에 저금할수록 부피가 커지는 돼지저금통이 등장했다.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돼지저금통은 처음에는 어른 주먹 크기에 불과하지만 저금액이 늘어나면 최대 5배까지 확대돼 핸드볼 공만큼 커진다. 일반 플라스틱 재질에 주름을 잘게 잡은 것이 이 저금통의 비법.

### 가장 큰 저금통?

요즘은 생수통을 저금통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많다. 얼마전 TV에서 봤는데 가스통에 구멍을 내서 그속에 동전을 넣는 사람도 있더라. 몇 년을 넣어야 다 찰까? 혹은 죽을 때까지?? 매일 동전으로 만 원씩 넣는다고 해도 다 채울 수 있지 의문이다.



### 디지털 저금통 '클로피매징뱅크' | 대한민국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저금을 하면 매일매일 이 자계산을 해주고 지금까지 저금한 액수를 보여준다. 똑똑한 녀석. 목표액이 채워지면 축하멜로 디까지. 아이들 경제교육용으로 그만이다. 유럽에 수출 중이란다.



## 쉴! 저금통 깨지 않고 돈 빼낼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 우선 입구를 살살 만집니다. 그리고 빼냅니다. 잘 안되면 좌우로 돌려서 빼냅니다.

.. 얇은 철필(30센티자보다 작은 것)을 입구에 넣고 저금통을 흔들어서 지폐가 걸리게 한 후에 잡아 빼면...전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빼왔

습니다. .. 플라스틱 저금통일 경우엔 핀셋으로 지폐 한쪽을 꼭 잡고 살짝 돌린후 빼내면 끝부분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저금통이 투명

이라면 더욱 좋겠군요. .. 실핀 같은 걸로 자주 빼내곤 하지요. 동전은 슬슬슬 세워서 쑈~, 지폐의 경우는 저금통을 거꾸로 들고서 살살

흔들어서 지폐가 구멍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핀 사이에 지폐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살짝 잡아 당기면 게임 끝입니

다. .. 먼저 같은 모양의 새 저금통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돈이 가득 들어 있는 저금통

을 와장창 부서버리십시오. 잠깐의 아픔에 이어...ㅎㅎㅎ..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 Piggy Bank

호주의 한 도자기 회사에서 만든 돼지저금통들이다. 표정들이 즐겁다.



# 누구에게나 인생은 예술이다

**내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하숙집 이웃방에 A군이라는 후배가 있었다. 그는 무척 착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무엇이든 한가지 일을 생각하면 끝장이 날때까지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때론 노이로제 상태에 빠져 번민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으레 내 방으로 찾아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지 기운을 차리고 자기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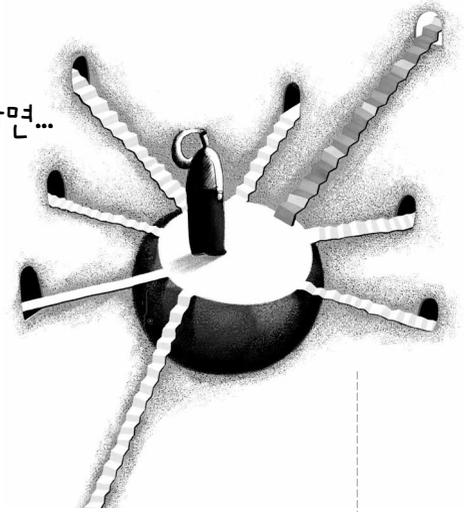
그러던 그가 자살을 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가 몹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전처럼 그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종종 “이무라형을 만나고 싶다. 그를 만나 내 가슴속에 있는 말을 후련하게 털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덟살짜리** 자살미수 소년을 담당했던 일이 있었다. 소년에게는 한 살 위의 형이 있었는데, 우애가 남달라 이웃에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 그런 형이 며칠전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날부터 소년은 자기방안에 틀어박혔고 수면제를 먹기 전날 밤에도 형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다음날 신문에는 그 소년의 자살기사가 보도되었고 너무 안이하게 죽음을 택한 현대의 어린이라는 논평이 실렸다. 그러나 안이한 죽음을 택했다는 말은 과연 옳을까.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테이프에 담긴 형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동생의 행동이 안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막다른 한계점까지 몰려가서 얼마나 고민했으면……. 무척 고통스러웠으리라. 조그만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민하고 홀로 죽어간 것이다. 그들의 고뇌를 어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흔히들 자살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혼자 죽지 않으면 안되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자살사건이 일어나면 학자나 저명인사들은 하나같이 집안환경이나 사회적 단절의 탓이라고 논평한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다면...



**인생은 예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술이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생은 죽음으로 총괄된다.

**나는 지금 살아 있다.** 그러나 나의 폐

에서 퍼져가는 육종은 너무나 커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 서서히 닥쳐올 고통 때문에 어쩌면 어느 덴가 자살의 유혹에 깊이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 아직은 죽음으로 삶을 끝마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을 남겨두고 자살할 수는 없다. 살 수 있는 한 살고, 걸을 수 있는 한 걸어가야 한다.**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죽는 방법 외엔 다른 도리가 없게 된 사람들, 아무도 그 괴로움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여, 몸을 던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한번 생각해 보길. 후회하지 않겠는가? 울고 있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다. 몇 천 몇 만의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선가 울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마디 말을 걸 어보지 않겠는가.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던 중 섬유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 그후 약 6개월의 시한부 생명임을 통보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며 이 글을 씀.

# 강한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영화 '말아톤'과 '밀리언달러 베이비'-



요즘 저는 매일 달리고 나 걸어보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말에 산을 오르기 위해 서지요. 새삼스레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갑자기 왜 달

리기? 웬 산? 요즘 유행하는 웰빙 아니면 현실도피?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나는 왜 힘들게 달리고 산에 오르는가? 대개 건강을 위해 이런 일들을 시작한 다지만 분명 처음부터 저는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건강을 염려했다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어야지요. 부끄럽게도 저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매운 음식과 뜨거운 커피를 즐깁니다. 기쁜 밤을 새며 일도 합니다.

그러던 중 최근 개봉된 두 편의 영화가 의식 한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화 '말아톤'과 미국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아톤'의 초원(조승우 분)과 '밀리언달러 베이비'(이하 밀리

언으로 칭함)의 매기(힐러리 스웽크 분)가 달리고 권투를 하는 이유에서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강한 개인에 대한 동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유를 향한 본질을 본 것이지요.

자폐증은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뇌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뿐이지요. 세상 누구보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외로운 왕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과 '양철북'의 오스카가 그러합니다.

초원이는 매일 달립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권유로 타율적인 달리기를 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초코파이와 자장면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본연의 모습을 느끼는 것이지요. 일찍이 작가 장정일은 강아지 기르기와 인간 교육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네 역사는 늘 인간과 환경간의 반복되는 싸움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초원에게 이 사회는 늘 위협적인 환경으로 존재합니다. 엄마의 눈물과 강인함 그리고 한숨과 비탄마저도 초원에게는 불안의 그림자로 작용하지요. 언젠가부터 초원은 달라집니다. 이름 그대로 얼룩말이 뛰어드는 초원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엄마의 손을 놓고도 초코파이가 없어도 바람의 저항을 가르며 달립니다. 흔히들 이 영화를 보고 자폐증이라는 병을 이겨낸 휴먼드라마라는 평을 많이 합니다.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당신들의 휴머니즘은 동정에 바탕을 둔 온정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아톤'에서 본 초원의 모습은 환경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아름답고 자유로우며 강인한 청년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밀리언달러 베이비'의 매기는 또 다른 강한 개인을 보여줍니다. 여자 권투선수이기 때문에 강하다고요? 서른이 넘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강하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다합니다. 저는 모든 저항과의 싸움을 끝낸 뒤에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육신을 버릴 수 있는 매기의 자유와 이를 받아들이는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분)의 눈물에 전율을 느낍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확신, 더 이상 비참하고

싶지 않은 자기 존중감이 전해 집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하는 매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를 보지 못합니다. 강한 개인은 자유로움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저항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어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두 영화를 바라보며 저는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강인함에 경외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명제 앞에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목숨을 가버리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지나치게 무겁게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신체건강은 권태로움, 무기건조, 몸짱 신드롬의 원인이 되며, 특히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겨울바람을 이겨낸 씨가 꽃으로 피어나듯이 환경을 이겨낸 강한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함께 걸음> 2005년 4월호  
'이영문의 영화다시보기'에서 발췌



# 아동학대의 이해와 상담

CSP 공개워크숍 2005 · 05  
 일시 : 2005년 5월 26일  
 장소 : 아주대학교 병원 수석홀  
 강사 : 김정미 | 경기도아동학대에방센터 소장

## I.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등.

###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3. 방임(Neglect)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4. 성학대(Sexual Abuse)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II.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의 징후는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신체적 징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거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등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등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등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언어장애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의학적 치료와 치료 치료의 불이행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또는 임신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체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굼힌자국, 홍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 주변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또는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2.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신만함 및 주의 집중 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비행, 가출, 범죄행위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III. 아동학대 후유증

- 중추신경계 장애 ○ 골 성장판 손상 및 사지 변형
- 공격·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 행동
- 파괴적 행동 ○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 우울, 위축, 대인관계 기피
-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 심한 공황상태 ○ 성장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 무기력, 회피적, 해리증상

- 분리불안, 수면장애, 비현실적 두려움, 제한된 감정표현
- 배변훈련 불가능
- 집중력 결피 및 주의산만, 등교거부
- 사회적 고립, 신체화증상, 약물남용
- 성격체성 혼란, 성직착, 과잉자위행위
- 성적인 행동표출, 조숙한 성놀이
- 불안장애, 자괴심 저하, 만성스트레스와 관련한 불안
- 약물남용, 경계선 인격장애, 해리성정체감장애
- 순결 상실감, 열등감, 수치심
- 성적 혐오, 성기능장애, 성범죄
- 신경쇠약, 정신분열
- 공포감, 불신감으로 인한 대인관계 미숙
- 원만하지 못한 부모관계 ○ 영양실조, 낮은 지능
- 발달지체, 발음부진, 치아불량, 건강불량 ○ 사망

## IV. 피학대아동의 면접 상담

피학대아동을 면접 상담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1. 상담 조건

먼저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면접장소로 선택해야 한다. 면접시간은 30분~1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아동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한다. 상담원은 열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데, 민감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과 친근한 관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질문 방법

상담시 질문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주도적이거나 강압적인 질문은 피한다. 개방형 질문부터 구체적인 질문방식으로 질문해 나가며, 질문내용이나 반응은 기록해 둔다.

### 3. 기타 면접 기술

일상적 대화로 시작하여 아동과 친근감이나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아동과의 일상대화 속에서 아동의 언어구사력, 정서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면접 진행한다. 그들만의 단어와 그 뜻을 상담자가 명확히 이해했는지 검토한다. 반복적인 질문은 피한다.



# 인도 땅에서 하루만에 1000루피 벌기

처음으로 밝은 이국땅, 신비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인도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청년 봉사활동프로그램 World Exchange for Peace에 참가하여 5개월 동안 봉사활동과 여행을 겸하면서 만나게 된 낯선 문화와 사람들,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그들은 더없이 친근한 이웃이 되었다.

내가 생활했던 마하라쉬트라주의 나푸르에서는 매년 2월, 복인도교회연합회에서 교회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연다. 우리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인도에 와서 그들로부터 늘 받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대접하는 입장이 되어 바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팔아야 하나? 여행가방을 뒤져보기도 하고 숙소 주변을 어슬렁거렸지만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궁리 끝에 우리들은 음식을 만들고 게임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1년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참가자들은 이 바자회에서 1000루피(한화로 약 30000원)를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먹 불끈~~ 우리도 꼭 그만큼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일념 아니 욕심을 부리기로 했다.

우리가 만들기로 한 음식은 부침개와 고구마 맛탕이었다. 만들기도 쉽고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부침개는 이곳 사람들이 즐겨먹는 '짜빠띠'라는 음식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누군가의 얘기에 '코리안 짜빠띠'로 이름까지 지어붙였다. 게임 역시 준비가 쉬운 물풍선던지기로 결정하였다.

드디어 바자회날, 음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시장을 찾았다. 우리네 가락시장을 연상케 하듯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과 온갖 먹거리 등등이 하루를 여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었다. 시장의 모든 물건은 저울을 통해 값이 매겨진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커다란 시장바

구니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사고 담는다. 우리나라의 옛 시장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도 재래시장이나 시골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했다.

밀가루반죽을 하고 야채를 씻어 버무리고 지글지글 팬에 적당히 기름을 두르고 부쳐내고 보기 좋게 모양을 내 담는데 모두가 부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야 부침개가 평범한 간식거리 중 하나지만, 여기 사람들에게겐 처음 보는 음식일텐데, 과연 그들이 먹으려 와줄까?” “1000루피는 꼭 벌어야 하는데..”

설레임 반 두려움 반, 바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이 “아이에, 아이에(인도 공용어 중 하나인 힌디어로 “이리 오세요”)하고 목청을 높이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이나, 어떤 재료로 만들었으나, 한국에서는 어떨 때 이 음식을 먹느냐를 묻고 대답하기가 더 바쁘다. 정작 음식맛은 보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일은 뭐냐, 왜 왔느냐 등등 질문만 해대는 그들. “그래도 고객인데 정성껏 모셔야지.” 그래야 우리 음식도 사먹고 게임도 즐길 것이란 생각에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웃음으로 대접하였다.

힘들고 정신없던 바자회가 끝이 났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번 돈은 얼마나 될까? “하하하 기뻐하시라!! 바로 1180루피로세!!!” 너무나 뿌듯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모두 이 교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벌써 2년 전 일이 되었지만 돌이켜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져 온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땀 흘린 대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과 참가자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 같이 사는 사회의 기본을 다한 것 같았다. 이젠 “인도 땅에서 하루만에 1000루피 벌기!” 책이라도 내볼까나? ^^

글 | 백민정

# SECRETS TO A HEALTHY LIFESTYLE 1 건강한 삶을 위한 비결 1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강한 개인이 되자!!



### ♥ 자기주장이 확실한 나!

☆  
싫고 좋음은 분명하게 표현한다.

→ 필요하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나!



☆☆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맞설 수 있다.

→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진다.



☆☆☆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존중한다.

→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존중 받는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믿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를 선부른 판단 없이 들어주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며 또한 진정으로 우리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모두에 고개를 저어야 한다면 다음의 비결을 잘 챙겨보자.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자!

**두렵고** 불안할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다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몇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글로 적어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좀더 쉬울 것이다.

☆ “실수 좀 하면 어때.”

☆☆ “나를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잖아.”

☆☆☆ “이건 단지 느낌일 뿐이야.”

☆☆☆☆ “두렵기는 하지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야.”

☆☆☆☆☆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겨냈는걸.”

☆☆☆☆☆☆ “난 할 수 있어.”

☆☆☆☆☆☆☆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윈 걱정하지 말자.”

☆☆☆☆☆☆☆☆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다.”

☆☆☆☆☆☆☆☆☆ “지금 이대로의 나로 충분해. 난 할 수 있다.”



### 편집후기

저금통에다 저금해본 게 언제였더라?

저금을 하기 보다는 동생이 열심히 저금해둔 돼지저금통을 몰래 뜯었던 기억만 난다. 이

제라도 빈 생수통 하나 꼬불쳐 부~우~자 되어볼까나?

- 백 민 정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다. 맞는 말일까?

새로 창간된 여행신문을 읽다가, 통권2호째 발간된 교양지를 뒤적거리다가 문득 다가서

는 벽을 느낀다. 한동안 우물파기를 게을리한 때문이다.

- 이 디